# 피눈물 삼키며 다큰 자식 '평생 돌봄' 사회는 외면하고 쌓여만가는 응어리

장애아동 가족이 아프다

〈상〉 발달장애 가족 '힘겨운 삶'

##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살길" 잠못자며 매일 기도했던 엄마 발달장애 아들과 극단적 선택

## 장례식장 찾은 이용섭 시장에 장애인부모연대, 대책 호소

## 광주 발달장애인 7834명 지역사회가 힘겨움 나눠야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살수 있기를…."

아픔을 참고 견딘 부모의 수십 년 세월은 철저히 장애를 둔 자녀에게 맞춰진 세월이다.

이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이 아프다. 장애 자녀들의 뒷바라지는 오로지 가족들 몫이다. 정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발달장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다. 광주지역 발달장애인만 7834명.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 가정에만 '독박 돌봄'을 맡기지 말자는 취지의 '장애아동, 가족이 아프다' 시리즈를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 3일 오후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 모자(母子)는 볼을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발달장애를 겪는 아들 A(25)씨를 돌본지 25년,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살길…" 기도하며 편하게 잠 한 번 자지 못했던 사진 속 50대 엄마는 끝내 연탄불을 피웠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회원들은 장례식장를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울먹이며 호소했다.

"시장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용섭 시장은 고개를 숙였다.

김유선 부모연대 회장은 간절히 호소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엄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빈소를 지키며 이 시장에게 살려달라는 회원들의 울음은 이 시장이 자리를 뜰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발달장애인은 7834명, 이들 가운데 843명이 자폐증상을 갖고 있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가 6991명이다. 특히 자폐 증상 중 도전적 행동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도 7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성인이 되면 힘이 세져 부모 입장에서는 행동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항상 아프다. 발달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에 평생을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내가 아프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사회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한계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모자의 경우도 비슷했다.

A씨 모자는 코로나19로 평소 이용해오던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이' 역할을 했던 센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엄마는 하루 온종일 A씨를 챙겨야 했다.

A씨는 자라면서 '도전적 행동'이라고 불리는 증상까지 보였다. 몸이 다 자라 힘이 세진 아들을 50대 엄마가 하루종일 돌보기는 힘에 겨웠다. 엄마는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까지 심해졌다.

엄마는 결국 정신병원에 아들을 보냈다. 엄마가 해 주는 것 아니면 잘 먹지 않는 아들이 힘들어할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들은 병원에 간 뒤 13㎏이 빠졌다. 엄마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죄책감에 5월 25일 아들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어디로 보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했다.

엄마는 주변에 "퇴원 후 1주일이 10년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엄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 모자만 그럴까.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와 함께 황룡강 변에 서지 않아본 엄마들이 없을 걸요." 부모연대 회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죽어야만 끝이나는 '끝장 돌봄', 발달장애인을 둔 광주·전남지역 가족들의 사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발달장애를 둔 엄마들의 소원은 한가지다.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 다 갔으면…." 하지만 자식들 챙기다 자신들 건강은 뒷전이 된 엄마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18년에만 해도 장애를 둔 회원 2명이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는커녕, 죽을 때까지도 자녀의 후견인을 누구로 해야할지, 자녀가 머물 곳을 어디에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지역사회가 이들 가족을 짐을 나누어 져야 할 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남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 중인 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들. 〈남구청 제공〉

지난 3일 발달장애인 A씨 모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과 부모연대 회원들을 위로 중인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아동학대로 징역형 받은 중학교 배구코치 행태 보니

## 겨울 난방 안된 체육관에 반바지·반팔 차림 남겨놔 음식 억지로 먹이고 방 옮기기 반복하며 잠 안재워

난방 안되는 체육관에 2~3시간 남겨놓기, 음식 억지로 먹이기, 배구 코트 300번 돌리기, 방 옮기기 반복하며 잠 안 재우기 등.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중학교 배구부 코치였던 A(48)씨 학대 행위는 지속적이면서 교묘했다.

수시로 폭언을 했고 가혹행위, 협박 등도 대수롭지 않게 했다. 학생 선수들은 A 코치의 화풀이 대상이나 다름없었다. 학생들도 A씨 기분이 안좋을 때 자신들에게 학대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학교 배구부 선수로 활동하는 중학생 10명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2월 겨울철, 몸풀기 운동 뒤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있던 선수들 3명에게 난방이 되지 않는 체육관에서 2~3시간 머물도록 했다. 코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중학생 선수 1명은 감기에 걸려 병원 신세까지 졌다.

선수 부모들이 간식으로 주문한 치킨·피자가 너무 많아 A씨에게 일부를 갖다주자 "먹기 싫어서 주는 거냐"며 이미 저녁을 먹은 아이들에게 많은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 다 먹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 일부 학생은 억지로 먹어 구토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훈련 중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했다. "때리지 않고 괴롭히는 방법은 수백가지나 있다. 부모에게 말하면 인맥을 총동원해서 두배로 갚아주겠다", "부모에게 말하면 두배로 공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14살짜리 학생 선수들 7명에게 시합 준비를 위해 리조트 주변을 걷도록 했다가 천천히 걷자 500m 구간을 30분 내 15바퀴 돌라고 하다가 시간 내에 돌지 못하니 다시 똑같은 요구를 하며 학대행위를 했다. 리조트 내 숙소로 들어온 뒤에도 7차례나 짐을 싸서 이방 저방으로 옮겨 다니게 하며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도 드러났다.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평소 50회 정도 뛰게 하는 배구 코트를 300회 왕복해 뛰게 하는가 하면, 득점하고도 파이팅을 크게 하지 못한다고 질책받은 선수가 울면서 파이팅을 외쳤는데도, 선수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다른 선수를 시켜 후배 선수를 공으로 맞추라고 하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 일당 항소심서 형량 증가

법원이 기획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였다. 50명이 넘는 피해자와 전부 합의했음에도, 경찰관을 음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기획부동산 사기의 폐해를 알고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B(41)씨, C(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B·C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와 전원 합의해 피해 변제가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지만 재판부는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이들은 수도권과 광주 등에서 경매회사 등을 운영하며 "경매전문가가 전국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산 땅이 있다.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거나 판교 테크노밸리, 수도권 2기 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거짓말 해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립공원 등으로 묶여 있는 땅을 피해자들에게 팔아 넘겨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3명으로부터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부동산 시장 교란 중개사·불법전매자 등 벌금형… '관대한 법' 지적

분양권 불법 전매나 불법 중개 행위로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불법 전매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정식재판으로 회부해놓고도 정작 검찰 처분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 등을 우려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던 광주시와 경찰 등의 분위기와도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A(34)씨 등 16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2017년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전매제한 기간에 있는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 또는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보조원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주부, 공무원조차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 전매에 나서거나 알선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인 B(58)씨는 6차례에 걸쳐 전매제한기간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면서 자신이 사들였던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에 팔아치웠다가 적발됐다.

불법 전매 행위가 처벌 대상임에도 버젓이 분양권 전매에 나서거나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머물렀다.

재판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저소득층에 지급할 마스크 빼돌린 통장 벌금 500만원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 300여장을 빼돌린 70대 통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지역 통장 A씨는 지난 2월 지역 내 19명에게 전달할 보건용 마스크 570개를 보관하다 332개를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막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들에게 1인 30개씩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배포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매각물건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대지/임야/전답] | | | | | |
| 2019타경 3677 | 1 | 해남군 계곡면 장소리 347 803㎡[공유자지분중33분의11[단,김순덕,박종임,박종철,박종석,박종심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사실조회서회신에의하면농지법상불법전용된농지에해당되어원상회복명령이발하여질가능성이있음]이런사유로소재지관서의농지취득자격증신청에대한반려처분등이있을가능성이있으므로확인요] | 전 | 2,676,700<br>2,676,700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를1회로제한],현황"전및건부지",제시외건물및수목은매각제외 |
| 2019타경 3684 | 1 |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 420-1 682㎡[공유자지분중2분의1[단,공유자이율배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사실조회서회신에의하면농지로원상복구후또는원상복구계획제출하여그실현가능성인정되면농지취득발급가능하다고함].일부가소하천구역] | 전 | 4,978,600<br>4,978,600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를1회로제한].지상물[문중공적비및사당표지석등]및제시외수목[조경수등]매각제외 |
| | 2 |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947-1 3043㎡[공유자지분중3분의1[단,공유자이율배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 답 | 10,751,580<br>10,751,580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를1회로제한] |
| 2019타경 4151 | 1 |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827 529㎡ | 대 | 18,334,800<br>18,334,800 | 일괄매각,목록3농지취득자격증명요,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사실조회서회신의하면농지로원상복구후농지취득발급가능하다고함] |
| | | 동소 830 453㎡ | 대 | | |
| | | 동소 831 291㎡[현황"잡종지또는창고용건부지",제시외건물매각제외,지상에철파이프[비닐]하우스매각제외,인접토지와경계등이불명확하므로경계측량등에의한별도의확인요] | 답 | | |
| 2019타경 4168 | 2 |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116-1 1342㎡[인접토지와지적경계없이일단지의토지로이용중] | 전 | 64,416,000<br>64,416,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자동차,중기] | | | | | |
| 2020타경 50525 | 1 | 사용본거지:완도군 완도읍 대야이구길 61-9 등록번호:97도5963 차명:코란도스포츠 연식:2012 | 자동차 | 12,000,000<br>12,000,000 | 보관장소:현대자동차매매상사[전남해남군해남읍중앙1로478] |
| 2020타경 50624 | 1 | 사용본거지: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45번길34-8, 2차동 402호[블루오션] 등록번호:48다9917 차명:GLC220 d 4Matic 연식:2017 | 자동차 | 42,000,000<br>42,000,000 | 보관장소:현대자동차매매상사[전남해남군해남읍중앙1로478] |
| [기타] | | | | | |
| 2020타경 674 | 1 | 선적항:완도군 노화읍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대물수산호 어선번호:1606017-6468902 선체재질:FRP총톤수:1.72톤 기관의종류와마력및대수 가솔린선외기 기관 250.000 마력 1대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16년6월12일 | 선박 | 45,812,920<br>45,812,920 | 보관장소:㈜와이제이마린[전남완도군완도읍죽청리소재언착장앞] |
| 2020타경 759 | 1 | 선적항:완도군 금일읍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소리호 어선번호:9708005-6468902 선체재질:FRP 총톤수:4.53톤 기관의종류와마력및대수:육상차량용디젤 기관 256.000 마력 1대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1997년7월23일 | 선박 | 15,665,100<br>15,665,100 | 보관장소:㈜와이제이마린[전남완도군금당면가학리가학항 |
| 2020타경 858 | 1 | 선적항:완도군 금일읍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노아호 어선번호:1612030-6468902 선체재질:FRP 총톤수:1.83톤 기관의종류와마력및대수:가솔린선외기 기관 250.000[현황:150.000]마력1대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16년12월20일 | 선박 | 29,333,520<br>29,333,520 | 보관장소:대성선박[전남완도군금일읍척치항선착장앞 |
| 2020타경 865 | 1 | 선적항:진도군 고군면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반도호 어선번호:1606001-6469007 선체재질:FRP 총톤수:2.59톤 기관의종류와마력및대수:가솔린선외기 기관 300.000 마력1대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기관일체식 추진기1기 진수년월일:2016년5월31일 | 선박 | 49,616,640<br>49,616,640 | 보관장소:[유]유전[전남해남군해남읍백야리83-6] |
| 2020타경 872 | 1 | 선적항:진도군 군내면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만선호[변경전:동력선 청운호] 어선번호:1607006-6469000 선체재질:FRP 총톤수:2.22톤 기관의종류와마력및대수:가솔린선외기 기관 300.000마력 1대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16년7월19일 | 선박 | 51,912,000<br>51,912,000 | 보관장소:[유]유전[전남해남군해남읍백야리83-6]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6. 22.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6. 29.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조길호